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제야 깨닫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정말 일어난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교실은 노인의 발치라는 것을,
어렸을 때 여름날 밤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걷던 추억은 일생
의 지주가 된다는 것을,

삶은 두루마리 화장지 같아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 빨리 사라진

다는 것을,

삶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작은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
은 영원한 한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정상에 서기를 원하고, 살고 싶어 하지만, 행복은 그 산을
올라갈 때라는 것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진리를, 삶을 다 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것일까?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

진정한 삶은 늘 해답이 뻔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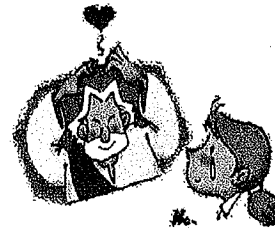
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땐 그랬지▶ 난로 위 양은 도시락
가방에 넣기에 알맞게 교과서 크기만 했던 도시락,
대각선으로 놓여져 있던 젓가락을 집어 젓가락에 붙
은 밥알부터 입으로 떼어 먹은후 먹기 시작했었죠.
겨울이면 난로의 두 번째쯤에 올려 놓아야 가장 잘
덥혀지기에 무척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어느 정도 살아야 계란이 밥 위에 얹혀져 있던 시절
의 노란색 양은 도시락, 집으로 가던 길에는 가방속
에서 쪼그렁 거리던 빈 도시락 소리가 이제와 새삼
그리운 이유는 무엇인지요!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3년 교회생활: "건강한가정, 건강한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5권 29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3년 7월 20일
☎520-9464,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calvary.ca.to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전도를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평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감
동 받고 전도를 잘하는지 항상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을 입에 붙이고 살 정도였습니
다.

그래서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라는 별명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여학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예수 없이 살 수 없다는 얘기 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도 나 없이 사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엄마가 딸에게
 볼에 음식을 놓고
 화장대에 앉지 마라
 네가 5분 내에
 화장을 끝낼 리가 없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네 엄마에게
 예쁜 옷을 선물해라
 너를 위해 반평생을
 첫은 앞치마로 사시지 않았니?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도니라	인도자
*찬송 Hymn	36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9 (시편 23편)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송 Hymn	202장	다 같이
기도 Prayer		정희자 권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로마서 7:21-25	인도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교 Sermon	믿음시리즈(2) "두 마음을 인정하는 믿음"	김성국 목사
특송 Hymn	542장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ing Pray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1절:김홍구 성도, 윤경례 집사 가정 2절:다같이)	다 같이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7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6	장현중	서동완	자원봉사(화장실)	박 실, 박일영
13	정덕수	송영철	탄생축하	박재양, 박태원
20	정희자	신영화	김홍구, 윤경례	송영철, 서동완
27	지찬영	양경배	민병구, 조미애	양경배, 원성호

'2003년 교회표어
"건강한 가정, 건강교회"(마 18:4)
부모의 기도받는 자녀
남의 형편 헤아리는 신앙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 교우소식
*많은 변화를 연출하는 날씨 덕에 감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따뜻하게 몸을 감싸세요. 감기 중에 계신 교우와 이웃의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수요성경강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광야같은 세상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일시> 매 수요일 저녁 7:30
- Term 3 시작: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 만큼 귀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Term의 첫날에 기도한 후 학교에 보내시는 것 잊지 마세요
- 연합신앙부흥회(예고): 갈보리, 임마누엘, 주님의교회, 은혜와진리, 온누리 영락, 오성, 샘이깊은, 로드니, 섬김의교회
<강사>이연길 목사(델라스 빛내리교회)
<장소> 주님의교회 <일시> 7월 29(화)-30(수) 저녁 7:30
*<제직세미나> 30일(수) 오전 10시-12시 <목회자세미나> 29일 오전 10시
- 어제 청년 연합부흥집회에서 우리 청년들의 찬양인도에 모두 은혜가 넘쳤습니다. 열매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만큼 얻게되는 진리를 배운 날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영화 록키중 록키의 대사-

◀착한 시인들▶ 에너벨 리 -에드가 엘런 포우-

오랜 옛날
바닷가 그 어느 왕국에
에너벨 리라 불리는
혹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를
한 소녀가 살았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게 사랑받는 것 외엔
아무 탄 생각 없는 소녀였답니다
...
달빛이 비칠 때면
아름다운 에너벨 리의 꿈이
내게 찾아 들고
별들이 떠오르면
에너벨 리의 빛나는 눈동자를
나는 느낀답니다
...

아들과 함께 Harbour Bridge
를 넘어 오던 날, 물오름을
하는 멧진 달을 보고 선머슴
같은 아들의 한 문장 표현...
'달 멋있다'. 평소 살가운 표현
못하는 아들의 마음이 보여
호뭇함에 가슴 따듯했습니다.
절제된 표현일수록 아름다움
이 더 해짐을 깨닫습니다.
그 밤, 뽀뽀머리 고교시절
듣던 심야음악 프로그램에서
이종환씨가 비음취인 목소리
로 읽던 이 시가 떠올랐습니
다.